

# 전북도, 바이오융합교육센터 건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공모 선정... 농생명바이오 핵심인력양성 탄력· 9월 교육시작· 24년 전문교육장 준공 예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2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공모 사업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교육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훈련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6년간 국비 94억 원과 도비 23억 원을 포함해 총 117억 원을 투입, 전라북도 농생명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에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통해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진행은 오는 9월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하고 전문교육시설은 올해 설계와 더불어 '24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사업 선정으로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전북농정 키워드인 농생명산업수도로써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융합교육센터' 교육시설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까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에 준공한다.

/김경수 기자



## 중국사무소, 새롭게 전북 홍보나서

광동성 선전 CGV영화관 내, 전라북도관 지정· 운영  
전북 문화관광 자원·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전북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 소장 정순택)는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자원과 국제행사 홍보를 위해 광동성 선전에 있는 CGV영화관 내에 전라북도관을 설치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전은 중국 광동성의 대표 도시로 홍콩과 인접해 있고, 많은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진출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인구 1,700만 명의 대도시이다.

특히, 전라북도관이 설치된 CGV 이광성점(壹方城店)에는 11개 상영관이 있으며, 선전에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선전에는 우리 교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에 활용하고, 광고관(2.4x3.7m)에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행사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또한, 전체 11개 상영관에 전라북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음료 수 광고 등을 한 달간 1,350회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사무소는 7월 한 달간 산동성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를 홍보할 바 있고, SNS홍보(인플루언서 20명)와 웨이보, 틱톡 공식계정을 운영 중이며, 중국 내 유명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CGV 전라북도관 지정·운영으로 "전라북도 홍보는 물론 광동성과 선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 자치경찰위, 전북형 자치경찰 우수제안 12건 선정

공유킴보드·공유자전거 주차장 설립·스토킹 범죄 방지대책 등  
담당부서 검토 거쳐 '지역 맞춤형' 다양한 치안시책 적극 반영 예정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통해 우수제안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제안으로는 '교통안전분야'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공유킴보드·공유자전거 주차장 설립, '사회적약자 보호분야' '스토킹 범죄 방지대책', '생활안전분야'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선정됐다.

이 봉사단에서 제안한 정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봉사단 김귀미 어르신은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통해 우수제안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제안으로는 '교통안전분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유킴보드·공유자전거 주차장 설립 및 모니터링 사업을 제안하게 됐으며, 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선배시민들이 후배시민들을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했고, 도내 전역에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우선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단 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도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10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실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안은 담당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형 치안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12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갖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실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안은 담당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형 치안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12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갖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김경수 기자

## 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실태 점검

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기여 목적  
적정 실내온도 준수·냉방기 순차 운휴 등 고강도 절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함으로 보인다.

점검기간은 8월 19일까지며, 불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준수(28°C), 복도조명 부분소등, 냉방기 순차 운휴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 폭염일수가 평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실내 냉방온도 기준과 전력수급 위기시 조치사항 등 강도 높은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7월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5주간 냉방기 순차 운휴 지침에 따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까지 30분간 청사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 냉방기 부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관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영해 자체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미준수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올여름은 8월 셋째주까지 전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공기관이 순선해서 에너지 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사히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이용 시설은 냉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 정해 사용지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올여름은 8월 셋째주까지 전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공기관이 순선해서 에너지 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사히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이용 시설은 냉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 정해 사용지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축산농가 폭염예방 대책 추진

전북도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응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폭염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및 롤링패드(냉각판) 등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가축 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에 취약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및 가축 사양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기시설 관리,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도가 높은 한낮(오전 11시~오후 4시)에는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소량을 자주 급여하며, 단위면적당 권장 사육두 수보다 10% 정도 줄여 가축을 입식하고, 출하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과 축사 내 환풍기 등 전기장치 과열에 의한 축사 화재 예방 및 환풍기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내일목사장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지역교육발전위원회, 단지목장 안기장사
- KBS 1TV 아침나눔, MBC 1TV, 11V, 12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전문이론서 · 웃음코칭서 · 심리상담사
- 게시 "66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쁜 배운, 배운, 배운"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공지능학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